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과 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남원 · 위은하^{†*} · 박우미^{**}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Body Proportion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d Women with Their Body Cathexis and Fit Satisfaction

Nam won Moon · Eun Hah Wee^{†*} · Woo mi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2007. 11.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body proportion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body cathexis and fit satisfaction related to those characteristics. It is hoped that this will help to improve ready-to-wear satisfaction in middle-aged wome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body proportion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were measured and were compared with that of standard and ideal body types. Then, the body cathexis and fit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Finall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average height of middle-aged women was 6.87 head, waist length was 58.9% of height, and knee length was 25.6% of height. In frontal appearance, the hip width, shoulder width, and chest width were wider than waist width(24%, 20%, and 11% respectively). Chest and hip depths was thicker than waist depth(19% and 17% respectively). Second, in lengths proportion, their lower body was shorter than the standard body shape for women in their 20's. Al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dth of frontal appearance and depth proportion of side appearance was small, suggesting a more slender silhouette among the middle aged women. Finally, middle-aged women who were not wide or big in the chest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bodies. As shoulder width and chest depth became small, the fit satisfaction of upper clothes increased. While longer lower body had higher fit satisfaction with pants crotch, shorter lower body had higher fit satisfaction with waist and abdominal parts.

Key words: Proportion of the body, Body cathexis, Fit satisfaction, Middle aged women; 신체비례, 신체
만족도, 착의만족도, 중년여성

I. 서 론

중년기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체적 · 심리적 · 생리적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다. 더욱이 최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달라지면서 중년여성의 자기개념도 과거 중년의 여성과 다른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충실했고 가족의 안위와 건강을 위

[†]Corresponding author

E-mail: weh@jnu.ac.kr

해 자신을 헌신하기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으로 바꾸고 있으며(정옥분, 2000)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주요 소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중년기는 생리적 균형이 상실되고 생활습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로, 중년여성의 체형이 높이 항복이 감소하고 둘레항목이 증가하게 되지만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은 '더 얇어 보이는 자신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는 각종 다이어트나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한 다양한 행위로 이어지며 그 목표는 여성의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형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체형에 대한 문화적 이상이 시각화되고 구체화 되어 있는 것으로(LaBat, 1987) 사람들은 그 문화적 기준에 자신의 체형을 비교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정임, 남윤자(2002)는 표준프로포션과 표준체형을 '체형 중 다빈도 구간에 속하면서 아름다운 크기와 형태, 프로포션을 지니고 있는 체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8세에서 24세 여성을 위한 표준체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년기 여성에 의해 제시된 표준체형은 모든 성인 여성층에서 빈번히 보여지는 구체화된 체형으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신체적 변화가 심한 중년여성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의복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령과 비만정도라고(심정희, 2003) 했을 때 이 시기의 여성들의 체형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표준으로부터 대부분 멀어져 있으므로 표준체형이 시기별로 제시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연령대의 표준형을 알기위해서는 신체계측적 자료와 함께 비례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중년여성들의 의복선택 성향을 살펴보면 체형변화와 다르게 의복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가 얕은 충과의 욕구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오늘날 40·50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의류상품의 구매와 착용에 있어서 점차로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인해 의복의 형태에 대한 욕구가 은폐나 위장에서 개성의 표현, 유행의 반영, 가치반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해지며 자기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의 신체적 특성과 아울러 의복요인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년여성의 체형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체형분류와 형태적 특성(김소라, 조진숙, 2001; 문명옥, 임희경, 2000; 심정희, 2002; 심정희, 2003; 심정희, 함우상, 2001), 신체만족도(심정희, 2003), 체형에 대한 자기평가(위은하, 박우미, 2003) 등이 있으나 신체적 크기를 반영하여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므로써 체형의 크기와 너비, 깊이가 반영된 보다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만족정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년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환경으로 인한 표준으로부터의 거리 이외에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가운데 생산된 기성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므로 인해 기성복에 대한 만족감이 얕은 층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이는 의복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의류산업체에서 묵인된 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표준체형이므로 연령대별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약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30세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타깃 연령과 다른 30세 이하의 패팅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오설영, 천종숙, 2002). 이는 기성복 치수적 합성을 떨어뜨리고 착용시 맞음새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브랜드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여성들의 기성복 착용시 맞음새에 대한 만족정도를 신체 크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년여성기에 적합한 디자인 및 패턴개발, 제품 생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1.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와 표준체형을 비교한다.
3. 중년여성의 신체 크기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이준옥, 남윤자(1999), 심정희(2001), 문명옥, 임희경(2000) 등의 연구를 근거로 중년여성의 연령을 규정하여, 35세에서 59세의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38명의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비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계

측과 사진촬영을 통한 간접계측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신체비례를 파악하기 위한 신체계측

신체비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간접계측법인 사진촬영법이 사용되었다. 사진계측을 위한 항목으로는 어깨높이, 가슴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무릎높이, 장지높이, 종아리높이, 발목높이, 키와 머리길이 등 10개의 높이항목과, 어깨너비, 가슴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양쪽무릎너비, 양쪽종아리너비, 양쪽발목너비의 7개의 너비항목, 그리고 가슴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등 3개의 두께항목을 수집하였다.

사진계측에 활용된 사진기는 디지털카메라 SONY DCS-S75(DM)이었으며 피험자 정면, 옆면 각각의 사진을 bmp file로 저장하였다. 계측과 촬영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험자는 체형의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주

<표 1> 신체사진 계측항목

구 분	계측항목	
높이항목(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높이 • 가슴높이 • 허리높이 • 엉덩이높이 • 무릎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지높이 • 종아리높이 • 발목높이 • 키 • 머리길이
너비항목(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너비 • 가슴너비 • 허리너비 • 엉덩이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무릎너비 • 양쪽종아리너비 • 양쪽발목너비
두께항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두께 • 허리두께 • 엉덩이두께 	

는 에어로빅 복을 착용하였다. 촬영시 피험자와 카메라의 거리는 4m로 하였으며 사진기 높이는 120cm로 고정하였고 피험자 뒤쪽에 10cm 방안지를 배경으로 부착한 후 촬영되었다. 이렇게 간접계측을 위해 촬영된 사진자료에서 Adobe Illustrator 9.0프로그램의 rule tool을 이용하여 높이, 너비, 두께항목에 대해 소수점 2자리까지 계측하였다. 구체적인 신체사진 계측항목은 <표 1>과 같다.

3. 설문조사

설문지는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체만족도는 LaBat(1987)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한 2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착의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는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수트 등의 기성복에 대하여 각 신체부위별로 잘 맞는지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물었고 신체부위에 따라 18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착의만족도를 묻는 문항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착용시 맞음새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설문항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체

<표 2>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가 평가된 신체부위

신체만족도 평가부위			착의만족도 평가부위		
얼굴	허리	두상	네크라인	가슴둘레	넓적다리
넙적다리	발목	어깨형태	어깨	허리	종아리
종아리	키부위	무릎	소매둘레	배	소매길이
목	체중분포도	자세	윗팔	엉덩이	허리길이
어깨너비	옆얼굴	몸통	팔꿈치	엉덩이돌출모양	스커트길이
엉덩이형태	가슴	배	아래팔	바지밀위	바지길이
전체실루엣	머리카락	등			
다리형태	아래팔	입술			
위팔	손목				

형을 크기 요인을 배제하고 형태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신장과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지수치를 이용하였으며 표준체형과 비교를 위해 LaBat(1987)과 이정임, 남윤자(2002)의 연구에 제시된 비례치를 참고하였다.

신체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의 신체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착의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신체부위의 항목별로 집단화하였다. 신체의 부위 중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에서 길이와 너비, 두께별로 7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 신체부위 값은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지수치이며 각 신체부위별 표준편차를 중년여성을 집단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집단 S는 비례적 크기가 신체비례의 평균으로부터 각 부위에 대하여 1 표준편차보다 적은 집단을 말하며 1 표준편차 이상의 집단을 집단 L, 집단 M은 그 사이에 분포한 집단을 의미한다.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과 신체만족도, 기성복의 착의만족도의 차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은 기술 통계로 평균과 빈도분포, 신체만족도를 요약,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적용하였고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 1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

I) 길이에 대한 신체비례적 특성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은 <표 4>와 같았다. 신체비례를 알아보기 위해 키를 기준으로 한 각 신체부위항목의 높이에 대한 비율과, 신체 각 부위의 높이끼지를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다. 각 부위별 높이의 비를 살펴보면, 키:머리길이의 비는 1:0.15, 키:어깨높이의 비는 1:0.81, 가슴높이의 비는 1:0.70, 허리높이의 비는 1:0.59, 엉덩이 높이의 비는 1:0.49, 장지높이의 비는 1:0.39, 무릎높이는 1:0.26, 종아리높이의 비는 1:0.18, 발목높이의 비는 1:0.03으로 나타났다.

또한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두신지수에 있어서, 머리끝에서 각 부위까지의 지수치를 어깨높이에서부터 제시하면 어깨높이까지의 두신지수는 1.27, 가슴높이는 2.03, 허리높이는 2.82, 엉덩이높이는 3.53, 장지높이는 4.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중년여성의 키에 대한 두신지수는 6.87정도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신체의 높이는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엉덩이높이의 비가 키의 약 1/2 지점에 해당하고 무릎높이의 비는 키의 대략 1/4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신체부위의 크기별 집단의 빈도분포

(단위: 명(%), N=133)

집 단	부위별 허리높이 N(%)	엉덩이높이 N(%)	어깨너비 N(%)	가슴너비 N(%)	엉덩이너비 N(%)	가슴길이 N(%)	허리길이 N(%)
집단 S	21(15.9)	21(16.7)	7(5.6)	20(15.0)	22(16.5)	18(13.5)	17(12.8)
집단 M	91(68.9)	89(70.6)	105(78.2)	92(69.2)	94(70.7)	91(68.4)	99(74.4)
집단 L	20(15.2)	16(12.7)	22(16.3)	21(15.8)	17(12.8)	24(18.0)	17(12.8)

<표 4> 키에 대한 각 높이항목의 비율과 두신지수

(N=133)

신체부위	키에 대한 신체비율(%)		두신지수(신체부위높이/머리길이)	
	M	SD	M	SD
어깨높이	81.4	1.56	1.27	.12
가슴높이	70.3	1.50	2.03	.13
허리높이	58.9	1.42	2.82	.15
엉덩이높이	48.5	1.46	3.53	.21
장지높이	38.6	1.56	4.22	.23
무릎높이	25.6	1.23	5.11	.26
종아리높이	18.4	.99	5.61	.29
발목높이	3.3	1.29	6.64	.33
머리길이	14.5	.72	1	.00
키	100	0.0	6.87	.33

2) 너비와 두께에 대한 신체비례적 특성

앞허리너비와 키를 기준으로 한 각 너비부위의 비율과 각 신체부위의 너비를 머리길이로 나눈 지수치를 제시한 자료는 <표 5>와 같다.

앞허리너비를 기준으로 한 너비의 비에 있어서, 허리너비:어깨너비의 비는 1:1.20, 가슴너비의 비는 1:1.11, 엉덩이너비의 비는 1:1.24, 양쪽무릎너비의 비는 1:0.82로 나타났다. 키를 기준으로 한 너비의 비에 있어서는, 키:어깨너비의 비는 약 1:0.21, 가슴너비의 비는 1:0.19, 허리너비의 비는 약 1:0.16, 엉덩이 너비의 비는 1:0.21, 양쪽무릎너비의 비는 1:0.14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어깨너비의 비는 엉덩이너비의 비율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으며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깨너비나 엉덩이너비의 비는 키의 대략 1/5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길이와 비교했을 때는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의 비는 머리길이의 약 1.5배이며 허리너비는 가슴너비의 비와 차이가 줄어 가슴, 허리, 엉덩이 너비가 통형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쪽무릎너비와 양쪽종아리너비의 비는 머리길이와 비슷한 수준이며, 양쪽발목너비의 비도 머리길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의 허리두께를 기준으로 한 각 부위별 두께의 비에 있어서는, 허리두께:가슴두께의 비가 1:1.19, 엉덩이깊이의 비는 1:1.17을 나타내었다. 또한 키에 대한 두께 항목의 비에 있어서 키:가슴두께의 비는 1:0.15, 허리두께는 1:0.13, 엉덩이두께의 비는 1:0.1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년여성들의 체간부에서 가슴두께와 엉덩

이두께의 비가 서로 비슷하며 허리두께의 비와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년여성의 체형과 표준체형과의 신체비례적 특성 비교

I) 높이에 대한 신체비례적 특성 비교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이 표준체형과 비교하여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정임, 남윤자(2002) 연구에서의 표준체형과 LaBat(1987)의 논문에서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한 두신지수 값을 비교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중년여성의 높이를 중심으로 한 신체비례적 특성을 이정임, 남윤자(2002)의 표준체형과 비교해보면, 머리길이가 표준체형에 비해 길게 나타난데 비해 어깨높이는 20대 표준체형과 비슷하고 가슴높이는 20대 표준체형보다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턱 주위에 생기는 군살로 인해 얼굴크기가 커지는 데 이는 전체적으로 중년여성이 20대 여성보다 신체비율이 짧아보이는 원인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머리길이가 표준체형에 비해 긴데 비해 어깨높이는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머리길이는 목이 더 짧아보이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높이, 엉덩이높이와 무릎높이의 비에서는 위 항목으로 갈수록 점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짧은 여성들에 비해 중년여성의 하반신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앞허리너비와 키를 기준으로 한 각 너비부위의 비율

(N=133)

항 목 신체부위	앞허리너비에 대한 신체비율(%)		키에 대한 신체비율(%)		두신지수 (신체부위/머리길이)		
	M	SD	M	SD	M	SD	표준
어깨너비	120.04	9.06	20.94	1.35	1.42	.12	1½(1.50)
가슴너비	111.54	5.48	19.52	1.50	1.34	.10	1¼(1.25)
허리너비	100	0	15.57	1.36	1.20	.10	1(1.00)
엉덩이너비	124.21	7.67	21.68	.92	1.49	.09	1½(1.50)
양쪽무릎너비	82.26	8.45	14.46	.97	0.98	.09	7/8(0.88)
양쪽종아리너비	-	-	15.02	1.15	1.02	.10	1(1.00)
양쪽발목너비	-	-	9.36	.92	0.91	.08	½(0.50)

<표 6> 허리두께와 키를 기준으로 한 각 두께부위의 비율

(N=133)

항 목 신체부위	허리두께에 대한 비율(%)		키에 대한 비율(%)		두신지수(신체부위/얼굴길이)		
	M	SD	M	SD	M	SD	표준
가슴두께	119.66	8.07	15.84	1.69	1.08	.12	1½(1.13)
허리두께	100	0	13.28	1.61	0.91	.11	1
엉덩이두께	117.80	8.09	15.57	1.36	1.07	.09	¾(.75)

<표 7> 높이항목에 대한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와 표준체형, 이상체형과의 비교 (N=133)

신체부위	대상	키에 대한 비율(%)		두신지수(신체부위높이/얼굴길이)		
		중년여성	표준체형*	중년여성	표준체형*	이상적 체형**
어깨높이		81.4	81.7	1.27	1.37	1.5
가슴높이		70.3	71.7	2.03	2.11	2
허리높이		58.9	62.5	2.82	2.80	2.66
엉덩이높이		48.5	49.9	3.53	3.73	3.75
장지높이		38.6	-	4.22	-	4.66
무릎높이		25.6	26.1	5.11	5.56	5.5
종아리높이		18.4	-	5.61	-	6.25
발목높이		3.3	3.6	6.64	7.19	7
머리길이		14.5	13.4	1	1	1
키		100	100	6.87	7.52	7.50

*이정임, 남윤자(2002)의 '표준체형 프로포션'에서의 키에 대한 비율과 두신지수

**LaBat(1987)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 체형' 두신지수

<표 8> 너비에 대한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와 표준체형과 이상적 체형과의 비교 (N=133)

신체부위	항 목	중년여성의 앞허리너비에 대한 비율(%)		중년여성의 키에 대한 비율(%)		표준체형의 앞허리너비에 대한 비율(%)*		표준체형의 키에 대한 비율(%)*		이상적 체형의 두신지수(신체부위/머리길이)**		
		M	SD	M	SD	M	SD	M	SD	M	SD	
어깨너비		120.0	9.06	20.94	1.35	163.8	2.5	22.6	0.9	1.42	.12	1½(1.5)
가슴너비		111.5	5.48	19.52	1.50	115.9	2.4	16.1	0.5	1.34	.10	1¼(1.25)
허리너비		100	0	15.57	1.36	100	0.0	13.8	0.6	1.20	.10	1(1.00)
엉덩이너비		124.2	7.67	21.68	.92	140.6	8.0	19.4	0.6	1.49	.09	1½(1.5)
양쪽무릎너비		82.2	8.45	14.46	.97	42.0	2.9	5.8	0.2	0.98	.09	7/8(0.88)
양쪽종아리너비		-	-	15.02	1.15	-	-	-	-	1.02	.10	1(1.00)
양쪽발목너비		-	-	9.36	.92	-	-	-	-	0.91	.08	1/2(0.50)

*이정임, 남윤자(2002)의 '표준체형 프로포션'에서의 비율

**LaBat(1987)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 체형' 두신지수

또한 이상적 체형과 중년여성의 신체비례를 비교해보면 어깨높이는 1.27로 1.5에 비해 작고, 가슴높이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허리높이가 2.82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엉덩이높이에서부터는 다시 이상적 체형의 값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깨높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년여성의 목의 길이가 이상적 체형에 비해 짧고 상반신이 긴데 비해 하반신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2) 너비와 두께에 대한 신체비례적 특성 비교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허리를 기준으로 한 너비의 비례에 있어서 중년여성과 표준체형을 비교해 보면, 중년여성의 어깨너비:가슴너비:허리너비:엉덩이너비의 비는 1.2:1.1:1:1.24인데 비해, 표준체형의 비는 1.6:1.2:1:1.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키를 중심으로 한 중년여성 대 표준체형의 어깨너비의 비가 20:22, 가슴너비의 비가 19:16, 허리너비의 비가 19:16, 엉덩이너비의 비가 22:19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적 체형

의 두신지수와의 비교에서는 어깨의 비는 적고 엉덩이의 비는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체형과 Salluso의 이상적 체형과의 두신지수를 이용한 비교에서는 어깨의 너비는 좁고 엉덩이의 너비는 비슷하며 가슴너비와 허리너비, 양쪽무릎너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9>에 제시된 허리를 기준으로 한 중년여성과 표준체형에 대한 두께항목의 비교에 있어서 가슴두께의 비는 1.19:1.27, 엉덩이두께의 비는 1.17:1.33으로 나타났고 키를 기준으로 한 두께항목의 비교에 있어서는, 가슴의 두께가 0.15:0.12, 엉덩이의 두께가 0.15:0.13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가슴두께:허리두께:엉덩이두께의 비는 1.19:1:1.17로 나타났고 표준체형의 가슴두께:허리두께:엉덩이두께의 비는 1.28:1: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Sinozaki(이순원 외에서 재인용, 2002)는 치수나 연령에 관계없이 몸의 비례가 아름다운 새로운 황금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즉, 키와 앞허리높이의 차:앞허리높이=1:1.618이고, 키:앞허리높이=1.618:1을 제시

하였다. 또한 너비에 있어서는 어깨너비:허리너비:엉덩이너비=1.6:1:1.4, 가슴두께:허리두께:엉덩이두께=1.3:1:1.3의 새로운 비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정임, 남윤자(2002)의 연구에서 표준체형의 비례는 키와 앞허리높이의 차:앞허리높이는 1:1.646이고 키:앞허리높이는 1.608: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년여성의 동체부의 모양이 거의 통형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표준체형은 허리선이 확실하게 좁고 점차 가슴까지 넓어지면서 어깨가 가장 넓고 엉덩이는 어깨에 비해 더 좁은 모래시계형 체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특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를 중심으로 한 복부의 비만으로 허리너비가 커진 결과이며 중년체형은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에 비해 실제치수는 크지만 비례적으로 어깨는 좁고 허리와 엉덩이는 넓은 체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대 표준체형은 서구적 이상체형과 비슷한 신체비례에 다가서 있는 데 비해 중년여성의 신체의 너비가 허리를 중심으로 커져 표준체형과 서구적 이상체형과는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신체비례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만족도의 차이

I)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분석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낮은 점수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나, 목과 손목, 입술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배, 체중분포도, 전체실루엣, 윗팔, 가슴, 몸통, 넓적다리 순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체중과 전체실루엣, 배부위에 대하여 대체로 많은 중년여성들이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신체만족도를 요약·설명하기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적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신체만족도 총 26문항 중 요인적재값이 0.5이하 이거나 어느 한 요인에도 뚜렷이 높은 적재량을 보이

<표 9> 두께에 대한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와 표준체형, 이상적 체형과의 비교 (N=133)

항 목	앞허리두께에 대한 비율(%)		키에 대한 비율 (%)		앞허리두께에 대한 비율(%)*		키에 대한 비율 (%)*		두신지수 (항목/얼굴길이)**		
	M	SD	M	SD	M	SD	M	SD	M	SD	표준
가슴두께	119.6	8.07	15.84	1.69	127.4	8.8	12.5	0.6	1.08	.12	1 $\frac{1}{8}$ (1.13)
허리두께	100.0	0.0	13.28	1.61	100.0	0.0	9.8	0.5	0.91	.11	1
엉덩이두께	117.8	8.09	15.57	1.36	133.1	6.3	13.1	0.4	1.07	.09	3 $\frac{3}{4}$ (.75)

*이정임, 남윤자(2002)의 '표준체형 프로포션'에서의 비율

**LaBat(1987)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 체형' 두신지수

<표 10> 신체만족도 점수분포표

신체부위	평균	표준편차	신체부위	평균	표준편차
얼굴	2.88	.73	옆얼굴	2.72	.75
넙적다리	2.56	.95	가슴	2.55	.84
종아리	2.73	.95	머리카락	2.84	.90
목	3.02	.84	아래팔	2.85	.74
어깨너비	2.70	.86	손목	3.10	.71
엉덩이형태	2.60	.84	두상	2.90	.86
전체실루엣	2.54	.86	어깨형태	2.82	.71
다리형태	2.71	.80	무릎	2.89	.70
위팔	2.54	.81	자세	2.92	.63
허리	2.61	.85	몸통	2.59	.79
발목	2.94	.95	배	2.32	.81
키	2.75	.92	등	2.82	.79
체중분포도	2.39	.88	입술	3.11	.90

<표 11> 신체만족도 문항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 목	요인적재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요인1: 동체부 형태 만족	몸통	.810			
	배	.811			
	허리	.665			
	체중분포	.660	5.484	24.928	24.928
	등	.657			
	전체실루엣	.645			
요인2: 가슴 및 하체부위 만족	종아리	.753			
	다리형태	.678			
	가슴	.657	2.439	11.088	36.016
	넙적다리	.654			
	엉덩이	.556			
	손목	.845			
요인3: 팔부위 만족	아래팔	.736	1.791	8.143	44.159
	위팔	.551			
요인4: 얼굴부위 만족	옆얼굴	.843	1.609	7.312	51.470
	얼굴	.818			
요인5: 어깨부위 만족	어깨형태	.857			
	두상	.649	1.309	5.950	57.421
	어깨너비	.601			
요인6: 목 및 발목부위 만족	목	.573	1.085	4.933	62.353
	발목	.544			

지 않는 5문항을 제외한 총 21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총 6개로 나타났으며 누적변량은 62%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몸통, 배, 허리, 체중분포 등 전체실루엣으로 이루어졌으며 몸통의 각 부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동체부 형태 만족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종아리, 다리형태, 가슴, 넙적다리, 엉덩이와 가슴부위가 포함되어 있어 가슴 및 하체부위 만족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손목, 아래팔, 위팔로 이루어졌으며 팔과 관련한 부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팔부위 만족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4는 얼굴과 옆얼굴로 이루어져 있어 얼굴 만족요인, 요인5는 어깨형태와 두상, 어깨너비로 이루어져 있어 어깨부위 만족요인, 요인6은 발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 및 발목 만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하여 비례적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집단간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먼저 허리높이의 비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진 집단의 신체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슴 및

다리부위와 목 및 발목부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슴너비, 허리두께별 집단에서 동체부 형태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엉덩이너비별 집단에서 팔부위와 목 및 발목부위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높이의 비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에서는 높이의 비가 클수록 가슴과 다리부위 및 목과 발목부위에 대하여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허리높이까지의 길이는 하체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체부가 긴 집단이 다리와 가슴부위 및 목과 발목에 대하여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들도 하체부가 길수록 다리와 가슴부위, 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의복행동에서 이들 부위를 강조하거나 관심이 집중된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슴너비와 두께, 허리두께별 집단에서는 동체부 형태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슴두께와 너비, 허리두께의 비가 적은 집단이 동체부 형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

(N=133)

<표 12> 신체비례적 특성 집단별 신체만족도 분석

신체특성 신체만족도 요인	허리높이			가슴너비			엉덩이(아내비)			허리두께			가슴두께			
	F값			F값			F값			F값			F값			
	S	M	L	S	M	L	S	M	L	S	M	L	S	M	L	
동체부 혈액 만족	2.55	2.52	.61	.17	2.96c	2.51b	2.19a	8.62***	2.65	2.51	2.58	.34	2.77b	2.58b	2.08a	6.21**
가슴 및 다리부위 만족	2.50a	2.58a	2.96b	3.60*	2.51	2.67	2.53	.82	2.53	2.62	2.73	.43	2.51	2.66	2.52	.67
팔부위 만족	2.85	2.80	2.75	.18	2.97	2.77	2.78	1.03	3.00b	2.74a	3.04b	3.23*	2.94	2.77	2.91	.94
어깨부위 만족	2.77	2.79	2.85	.07	2.98	2.76	2.78	1.00	2.72	2.78	2.98	.90	2.65	2.82	2.90	.70
얼굴부위 만족	2.95	2.75	2.78	.72	2.84	2.79	2.76	.06	2.73	2.74	3.11	2.43	3.09	2.74	2.84	2.06
목 및 발목부위 만족	2.97a	2.90a	3.39b	3.62*	2.90	3.02	2.89	.43	2.67a	2.96b	3.33c	3.34*	2.75	3.05	2.88	1.36

*p<.05, **p<.01, ***p<.001
 일파백은 duncan test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한 것임(a<b<c).

<표 13> 중년여성의 착의만족도 점수분포

착의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착의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네크라인	3.08	.75	엉덩이부위	2.84	.80
어깨	2.92	.68	엉덩이돌출모양	2.68	.75
소매둘레	3.00	.60	바지밀위	2.71	.77
윗 팔	2.98	.78	허벅지	2.66	.85
팔꿈치	3.00	.58	종아리부위	2.90	.81
아래팔둘레	2.93	.65	소매길이	3.00	.69
가슴둘레부위	2.80	.75	허리길이	2.94	.63
허리부위	2.73	.82	스커트길이	2.94	.69
배부위	2.72	.84	바지길이	2.91	.66

<표 14> 신체비례적 특성 집단별 촉의만족도 분석

신체부위 치의만족도 항목	어깨/너비			가슴/두께			허리/두께			F값			정령이높아			F값
	S	M	L	S	M	L	S	M	L	S	M	L	S	M	L	
네크라인	3.00	3.08	3.10	.03	3.13	3.07	3.08	.03	3.20	3.11	2.80	1.32	3.30	3.04	3.14	.98
어깨	3.00	2.93	2.86	.14	2.82	3.00	2.71	1.97	2.93	2.94	2.80	.26	2.95	2.99	2.73	.98
소매둘레	3.33	2.99	2.95	.99	3.00	3.03	2.88	.65	3.07	3.00	2.93	.18	2.90	3.01	3.07	.37
윗팔	3.50b	2.76a	2.67a	2.91*	3.06	2.80	2.50	2.74	3.20b	2.75a	2.53a	3.10*	2.65	2.80	3.00	.95
팔꿈치	3.33	2.99	2.95	1.07	3.12	3.00	2.92	.94	3.07	3.01	2.87	.50	2.95	3.00	3.13	.46
아래팔둘레	3.33	2.94	2.76	1.91	2.94b	3.01b	2.63a	3.47*	3.13b	2.97b	2.47a	5.06**	2.75	2.98	3.00	1.07
7)슴둘레부위	3.17	2.82	2.62	1.37	2.71a	2.93b	2.42a	4.83*	2.73	2.88	2.40	2.75	2.55	2.88	2.64	2.13
허리부위	3.33c	2.78b	2.33a	4.49*	3.24c	2.80b	2.13a	11.80***	3.20c	2.76b	2.07a	8.29**	2.40a	2.76a	3.07b	3.09*
배부위	3.33c	2.79b	2.24a	5.78**	2.94b	2.81b	2.25a	5.18**	2.87b	2.79b	2.13a	4.47*	2.45a	2.73a	3.20b	3.55*
정령이부위	2.83	2.81	3.00	.48	2.82	2.87	2.75	.22	2.73	2.91	2.53	1.58	2.70	2.85	3.00	.59
정령이둘둘모양	2.83	2.65	2.76	.32	2.84	2.59	2.66	.40	2.60	2.71	2.53	.44	2.65	2.71	2.60	.14
바지밀위	2.50	2.72	2.71	.23	2.79	2.65	2.72	.06	2.60	2.73	2.67	.21	2.75b	2.78b	2.20a	3.75*
넓적다리	2.50	2.68	2.62	.15	2.71	2.76	2.67	.37	2.53	2.70	2.53	.44	2.35	2.73	2.67	1.69
중아리부위	2.67	2.89	3.00	.41	2.54	2.71	2.99	1.71	2.67	2.99	2.53	2.87	2.55	2.92	3.13	2.68
소매길이	2.67	2.96	3.19	1.65	2.71a	2.59a	3.08b	3.94*	3.07	2.98	2.93	.14	2.70	3.04	3.13	2.49
허리길이	3.17	2.96	2.76	1.29	2.92a	3.06b	2.99b	2.93*	3.00	2.96	2.73	.92	2.75	2.95	3.20	2.31
스커트길이	2.83	2.96	2.86	.26	2.67	2.76	3.02	2.13	3.07	2.94	2.80	.56	2.80	2.98	2.87	.64
비지길이	2.67	2.90	3.05	.88	2.75	2.82	2.95	.48	2.87	2.91	3.00	.17	2.90	2.94	2.64	1.24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test 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한 것임(a<b<c).

년여성들은 가슴이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요즈음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에서 가슴이 큰 것을 선호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것과 비교해볼 때, 중년여성과 젊은 여성들의 체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체비례적 특성과 착의만족도 분석

<표 13>에서는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한 착의만족도를 평균점수로 제시하였다. 중년여성들의 착의만족도에서는 네크라인, 소매둘레, 팔꿈치, 소매길이부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허벅지, 엉덩이 돌출모양, 바지밑위, 배부위, 허리부위에서는 낮은 점수분포를 이루고 있다. 중년여성들은 기성복 선택 시 칼라나 네크라인, 소매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보고 선택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디자인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엉덩이부위나 바지의 밑위, 배, 허리부위는 중년여성들의 체형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 의해 착의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패턴제작이나 사이즈 설정 시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형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표 14>는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적 크기 특성에 따른 착의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신체비례적 특성은 신체의 각 부위별 높이와 너비, 두께별로 파악되었지만 착의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위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보이는 어깨너비, 가슴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높이의 비례적 크기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착의만족도를 살펴보면 어깨너비 특성별 집단에서는 윗팔, 허리부위, 배부위에서, 가슴두께별 집단에서는 아래팔둘레, 가슴둘레부위, 허리부위, 배부위, 소매길이, 허리길이에서, 그리고 허리두께 특성별 집단에서는 윗팔,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에서, 엉덩이높이 특성별 집단에서는 허리부위, 배부위, 바지 밑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각각 나타내주고 있다.

어깨너비 특성별로 보면 어깨너비의 비례적 크기가 작을수록 윗팔,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의 각 부위에서 더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깨부위는 중년여성들에게 있어 복부와 함께 체지방 침착이 많은 부위 중 하나로, 어깨너비가 작은 사람들은 중년여성의 특징이 체형에서 잘 두드러지지

않아 중년여성을 위한 브랜드 제품 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에서의 제품도 잘 맞기 쉬운데 비해, 어깨너비가 크면 의복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며 체형의 단점이 다른 곳에 의해 먼저 눈에 띄게 되므로 어깨너비가 작은 사람이 팔부위는 물론 배부위, 허리부위의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깨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복에 있어서도 소재별, 디자인별, 패턴메이킹의 방법 등, 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보다 확실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가슴두께 특성별 집단에서는 가슴두께의 비가 작을수록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의 착의만족도가 높았으나 가슴둘레부위는 가슴두께가 중간인 집단에서, 소매길이와 허리길이는 가슴두께가 큰 집단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두께별 집단에서는 허리두께의 비가 작은 집단이 윗팔,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에서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슴두께와 허리두께별 집단의 경우에도 두께의 비가 작은 집단에서 팔부위와 허리 및 배부위에서의 착의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년여성들의 의복착용 시 개인의 체형적 특성이 이를 부위에서의 착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높이 특성별 집단에서는 엉덩이 높이의 비례가 적은 집단, 즉 하체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중년여성들은 바지밑위부위에서 비교적 착의만족도가 높았으며 엉덩이높이의 비례가 큰 집단 즉, 하체길이가 긴 중년여성들은 허리부위와 배부위에서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바지밑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정도가 낮은 항목이었으며 하체길이가 짧은 경우에 이 항목에서 착의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들의 바지에서의 밑위길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의 형태적 파악과 함께 패턴메이킹이나 사이즈 체계 등을 접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35세에서 59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비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접계측을 실시하여 조사하였고 키와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지수를 구하였다. 중년여성의 신체비례 특성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의 착의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신체비례 특성으로 머리길이는 키의 15%, 가슴높이는 70%, 엉덩이높이는 49%였으며 중년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높이는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엉덩이높이가 키의 약 1/2 지점에 해당하고 무릎높이는 키의 대략 1/4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년여성의 어깨너비나 엉덩이너비는 키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엉덩이두께와 가슴두께는 허리두께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년여성의 높이에 대한 신체비례적 특성을 표준체형과 비교한 결과, 머리길이가 표준체형에 비해 길게 나타난데 비해 어깨높이는 20대 표준체형과 비슷하고 가슴높이의 비는 표준체형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으며 표준체형에 비해 중년여성의 하반신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년여성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너비와 두께의 비가 비슷한데 비해 표준체형은 허리너비의 비나 두께가 가슴과 엉덩이너비의 비나 두께의 비에서 비해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동체부 형태 만족요인, 가슴 및 하체부위 만족요인, 팔부위 만족요인 얼굴 만족요인, 어깨부위 만족요인, 목 및 발목 만족요인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누적변량은 62%였다. 중년여성들은 자신들의 목과 손목, 입술 등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 체중분포도, 전체 실루엣, 위팔, 가슴, 몸통, 넓적 다리 등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슴너비와 가슴두께, 허리두께의 비가 작을수록 자신의 동체부 형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허리높이의 비가 클수록 가슴 및 다리부위에 대해서 더 만족하였다. 또한 허리높이의 비가 크고 엉덩이너비의 비가 큰 사람이 즉, 다리가 길고 엉덩이와 허리의 차이가 클수록 목과 발목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년여성들은 네크라인, 소매둘레, 팔꿈치, 소매길이 부위에서 착의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넓적다리, 엉덩이돌출모양, 바지밑위, 배부위, 허리부위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여성들은 어깨너비의 비례적 크기가 작을수록 위팔,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의 각 부위에서 더 착의만

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슴두께의 비례가 작을수록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의 착의만족도가 높았으며 허리두께의 비례가 작은 집단이 위팔, 아래팔둘레, 허리부위, 배부위에서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엉덩이높이 특성별로는, 엉덩이 높이의 비례가 작은 중년여성들은 바지밑위 부위에서 비교적 착의만족도가 높았으며 엉덩이높이의 비율이 큰 중년여성들은 허리부위와 배부위에서 착의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중년여성의 신체적 크기를 키와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항목 이외의 다른 치수에 있어서도 비례적 특성을 통한 크기의 파악이 신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체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 크기나 비례적 이해는 체형변화가 심한 중년여성의 체형에 대한 탐색의 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인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연령별, 부위별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형태적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짧은 여성의 표준체형이 아닌 중년여성들에서 보여지는 다빈도 체형이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준체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중년기 여성의 신체만족 정도를 요인별로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함축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으며 중년여성의 신체만족 정도가 다른 부위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보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함께 신체변화가 많은 중년여성들의 기성복 착용에 대하여 신체비례에 따른 착의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신체의 부위별 상대적 크기에 따라 기성복 착용 시 더 만족하는 부위와 맞음새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신체비례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맞음새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기성복의 패턴이 보완되어 기성복에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신체비례에 대해 중년여성의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중년의 표준체형 자료가 없어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지역과 대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결과를 확대해석 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소라, 조진숙. (2001). 중년여성의 체형 분류 및 판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9), 1633-1644.
- 문명옥, 임희경. (2000). 중년여성의 상반신의 유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3), 301-312.
- 심정희. (2001). 중년 전기 여성의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8), 1386-1397.
- 심정희. (2002). 중년 후기 여성의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15-25.
- 심정희. (2003). 중년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7(1), 18-28.
- 심정희, 함우상. (2001). 중년여성의 체형 분류 및 연령별 특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4), 795-806.
- 오설영, 천종숙. (2002). 한국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 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50-61.

- 위은하, 박우미. (2003).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12-1123.
- 이순원, 김구자, 남윤자, 노희숙, 정명숙, 최경미, 최유경. (2002). *의복체형학*. 서울: 교학연구사.
- 이정임, 남윤자. (2002). 18~24세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 (제2보)-표준프로포션과 표준체형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6(6), 801-810.
- 이준욱, 남윤자. (1999).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와 파운데이션 착용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43, 83-96.
- 정우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柳澤澄子. (1987). *被服體型學*. 東京: 光生館.
- 土井サチヨ. (1986). *體型と衣服*. 東京: 東文書院.
- LaBat, K. L. (1987).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a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